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들과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이태희 전북은행 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성경식 부산은행 부행장, 최성일 금감원 부원장,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허인 KB국민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이수경 NH농협은행 부행장, 김경환 SC제일은행 부행장, 이호형 은행연합회 전무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銀行, 토지 투기대출 회수해야... 무주택자 LTV 완화 검토”

(담보인정비율)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행권 CEO 간담회**

부동산 투기방지 금융역할 강조
금소법 시행 적극 참여 당부
초장기 모기지엔 긍정적 평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LH사태와 관련해 “기획부동산과 은행직원이 연계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며 “농지 처분무가 부여되는 투기관련자 대출은 신속히 회수해 달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현재 농지 대출과 관련해 합법인지 아닌지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하고 있다”며 “(기획부동산과 은행직원이 연계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대출했는지 여부와 농지취득자체부터 잘못 되진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H사태에서 문제가 된 농지 대출은 고객이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등 대출자격요건을 구비 제출하면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제출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출이 진행될 수 있는 만큼 농지처분의 무가 부여되는 투기관련자 대출은 신속히 회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은 위원장은 또 금융소비자법 시행과 관련해 이전의 금융상품 판매관행을 완전히 바꾼다고 생각하고, 안착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법 시행으로 은행 창구직원들의 부담과 현장의 혼란·불편이 있었던 점에 대해선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당장은 부담 되겠지만, 향후 CEO제제 같은 무거운 책임을 사전예방하는 효과도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금소법 시행 참여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른 금융권 출연

금 확대에 ‘햇살론뱅크’를 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올해 확대된 출연금을 포함 서민금융상품으로 7조7000억원을 공급할 것”이라며 “은행들이 ‘햇살론뱅크’를 통해 소비자의 수요를 채우지 않으면, 사금융 등으로 수요를 채울 수밖에 없게 돼 결국 은행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만큼 햇살론뱅크가 은행의 시스템이 안정시켜 은행의 수혜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햇살론뱅크는 은행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1년이상 이용하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연 4~8% 금리로 최대 2000만원을 대출해주는 서민금융상품이다. 은행들도 보증 혜택을 받아 대출을 공급하는 만큼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은 위원장은 초장기 모기지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에 “당장 40~50년이 길어보일수 있지만, 보통 7~10년 사이 집을 갈아타는 만큼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50년 모기지가 작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명동 은행회관 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동할 경우 7~10년 사이 차주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는 가계대출 규제완화에 나설수 있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4월 중순 나올 가계

대출 안정화 방안의 큰틀은 가계대출을 총량측면에서 줄이자는 것”이라면서도 “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위해선 담보인정비율(LTV) 등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온·오프라인 창업

창업비용 99만원

나도 사장님이다

200여개 흥삼 브랜드 + 2만여개 인기상품

복지물과 웹카탈로그를 통해 남녀누구나 평생 판매 수익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창출하는 사업

★25년 역사 · 브레인TV 방송국 소유 햏터그룹★

(주)햏터라이프 02)2163-0043 / 070-7204-4515

네이버, 중소기업인 컨설팅 지원 본격화

‘비즈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네이버가 중소기업(SME)을 위한 경영 컨설팅 지원을 본격화하며 온라인 경영 컨설팅 시장에서 새로운 실험에 나선다.

네이버는 전문 상담이 필요한 SME와 경험과 역량을 갖춘 엑스퍼트를 서로 연결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경영 컨설팅 시장에서 차별화된 성장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해 ‘비즈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4월부터 시작되는 ‘비즈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램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개설 1년 이내 월 거래액 200만원에서 800만원 사이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연간 2만여명의 SME들에게 세무, 노무, 경영지원 분야의 네이버 엑스퍼트에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네이버는 사업 성장 초기 단계에 있는 SME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SME들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엑스퍼트에게는 사업자와 성장 과정을 함께 하며 잠재적 고객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금융위, 대리운전 보험조회 시스템 확대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 해소 기대

4월부터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에 참여하는 콜배정 업체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개인보험에 가입했다라도 조회시스템에서 조회가 되지 않아 단체보험에 중복가입하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일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에 콜마너에 이어 로지, 아이콘 등의 콜

배정업체가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가입여부는 대리운전업체가 조회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콜마너만 가입조회시스템에 연결돼 있어 콜마너를 사용하는 대리운전업체만 대리운전기사의 개인보험 가입여부를 조회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로지, 아이콘을 이용하는 대리운전업체도 보험가입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된다. /나누리 기자